

癌에 관한 小考

李 相 哲
(慶南·第一堂 韓藥房)

• 緒 論

癌은 岩化의 經路를 거쳐 周身 局部 어디든 據點이 마련되면 生命에 對하여 致命的인 毒으로 作用한다. 癌이 一段 體内外에 發病이 되었다하면 그 原因과 理由야 어찌되었든 正常的인 體内細胞가 癌核의 部位로 轉換하는 것을 癌化라 하는데 이 期間은 상당한 時日을 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癌化의 原因은 大氣圈의 邪襲과 患者自身이 保有하고 있는 包害要素 또한 腸管의 氣流波動에서 순식간에 變化하는 相剋化의 原因, 化學物質과 바이러스 등 要因이 적지 않으며, 또한 遺傳因子도 作用하는 것으로 본다.

어떻든 癌腫은 한번 걸리면 治療하기 어려운 難病으로 이에 對한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 이 病的 治療는 무엇보다도 그 病因을 잘 알아서 對處하는 것이 重要하다.

• 本 論

1. 病因病理

歷代韓醫學에서 보는 腫과 瘤는 周身, 局部 어디서든지 發病할 수 있는 疾病으로 記錄되어왔다. 그러나 人體周身局部 어디서든지 發病할 수 있는 疾病이면서도 發病腫處는 始初로부터 局所에 限定되어 있는 것같은 表現을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發病의 主要素因은 轉較注重의 內因이라 적고 있다 이를 더 考察해 본다면 歸納起來不外이며 外浸의 內迎이 不知하면 두 氣流의 相交가 克에 達하며 一定局部面에서 兩方面으로 歸着이 된다 그러므로 癌發病의 根源論的 考察로서는 外因과 內因의 두개의 原因을 들 수 있다 그 첫째는 大氣圈의 森羅萬象이 輪廻課程에서 不正한 六淫淫之氣가 作用하는 外因이며, 그 둘째는 五臟六腑의 相生相剋에서 일어나는 不和의 相源인 七情의 刺戟으로 因하여 氣不足 또는 抗氣力不和로서의 일어난다. 또한 病的素因의 作用을 보면 筋肉이 活躍을 할 수 있는 組織의 體制와 臟腑가 活動을 할 수 있는 榮華의 體制를 陰陽失調로서 두 機能의 活動障礙 및 經絡의 部分機能閉塞等

으로 氣血運行이 喪失되어서 氣滯며 血瘀며 痰隱結이며 外因不正邪襲이며 內憂外患의 交結이 되어 局部微物の 痰核造成里核이 發生되며 初腫后瘤로 漸進造成되어 癌腫瘤發生의 既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코져 한다 하지만 人間은 生活狀에서 하나의 특수한 습관에도 得病의 問題點을 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數年間 自記의 健康을 무시하고 外因六淫邪에도 內因七精의 第一主犯인 衣食生活에도 周邊環境에도 아랑곳없이 外邪未解며 傷損過慾之思慮等에서 痰隱結聚의 變化가 腫과 瘤와 癌을 誘發케 하는 特有한 要因이 된다하여도 가언이 아님을 아래와 같이 分類해서 論하고저 한다.(中醫外科學論 引用, p. 106, 上海科學技術出版社 刊.)

(1) 癌發生中 하나인 情志郁結

사람이 每事를 自己의 感情에 맞추어 일처리를 할려는데, 이에 비해 모든 事物은 自然의 變化하는 과정을 왜곡할 수 없으며 어떤 法이든 끝에서는 公正한 判決을 하는데 그 審判을 따르지 않을 수 없듯 不得已 外邪內傷等 五臟六腑의 活動領域이 相對的인 否定으로 病變溫床의 關係가 맺어지지 않을 수 없어 病起溫床의 病變이 움틀 수 밖에 없고 움튼 뒤엔 外邪로서 發病이 된것엔 外邪가 內氣보다 더 우월한 氣勢로서 強하게 밀어부쳐서 威勢로서의 恒急한 症勢로 몰고 간다. 그 맺어진 關係란 “외침의 六淫所襲과 內因的인 七情所傷”인데 人間은 自己의 欲望에 10分充足을 채우지 못할 경우 不均衡한 情緒生活로서 氣郁結瘀의 原因을 가져오게 된다. 名腑 臟器는 氣의 轉輸에 따라 各臟器의 機能自體에도 正常的인 것과 非正常的인 것에 影響을 주며 그에 대한 相當量의 比重을 차지하게 된다.

宜當 其 疾病의 宿患症候에도 여러 種類의 諸條件이 內在하고 있으나 한번 傷한 氣分은 感情이 자꾸 깊어져만 가기 때문에 氣滯의 變化로서 漸進的으로 變態形成의 腫塊가 되는 癰腫이야말로 長期應結疔의 로서 其實의 根本은 甲正處에 두고 病發生의 患發處는 乙變處나 丙變處로 誘發되는 수가 허다함으로 吾人等 醫藥從事者들은 病發生根本과 病源의 始發處를 모르므로 病源을 究明하는데에 크나큰 당혹감을 느끼며 은結되어 흠어지지 않음은 必有瘀血에 氣郁滯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學界人事들은 말하고 있다

萬一 氣가 滯하며 오랜 歲月에 풀리지 않아서 오는 痰과 濕 濕과 熱等의 變形이 長期間이 아니더라도 成腫化된다. 「內景」 「舉痛論」에 보면 “百病生于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中略 思則氣結”이라 적고 있다 이는 바로 人間의 욕심을 反射해서 病을 有發할 수 있는 要因을 氣源이라 하였는데 自己의 욕심과 기분에 맞지 않을 때 지나친 생각으로 思索에 젖을 때, 人間은 生活에 있어 相對性이므로 아무 뜻없이 남과 같이 無意味한 즐거움이라도 즐거우면 氣結

□ 학 술

은 緩解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이지만 過思라 할지라도 氣를 불려 應結됨으로 인간은 생활에서 부터 어떤 成就에 따른 過慾은 必然禁함이 根本이 아니겠는가 본다.

「外科正宗」說에 “ 欝傷肝 思慮傷脾 積想在心 所願不得志者, 致 經絡不暢 聚結成核 ”라 적고 있다. 이는 바로 近間에 이르러 脂肪肝의 診斷名이 누구든지 어떤 患者를 막론하고 食生活의 趣向關係로 옛 世代와는 다르지만 지나친 脂肪 즉 人體健康의 好助津液이야 泰山같이 많아도 좋으나 人體에 害를 끼치는 汚濁之脂는 人體內에 第一首長格인 肝臟을 害함이요 略少所得으로 長期間을 豫基하고 小汝爲積이나 大得還金으로 富를 노리고 朝夕間에 돈 돈 하면서 買金思想 아니 急하게 取富가 되지 않아서 또 每事가 잘 되지 않아서 조금함에 조금이 지나치게 쌓여서 心臟에 “惡”影響을 끼쳐서 반대로 脾나 胃의 機能을 自己能力以下의 格에 떨어뜨리게 함으로 食則不和가 된다. 他臟器로부터 受傳해 받은 臟의 發病源을 論한다면 神經性消化不良과 潰瘍性消化不良等を 選考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赤是도 平凡하게 읽을 수 있는 消化不良과도 同一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土台로 器官內에 微細隱滯가 累積됨에 따라 聚加如型的 “核” 즉 局部浮腫의 凸型態로 발생되는 症狀의 一種도 神經性으로 음, 食物의 無分別攝取에 辛, 鹹, 疔, 等이 局部刺戟으로 腑壁을 隱隱破裂케 한다 그러므로 凸 凹等の 始初有患을 몰고 오므로 核於肝脾로 因함이요, 또한 相思過志로도 赤然이라 하지만 心血通絡이 不均衡됨에 따라 淋巴管中の 經穴赤是 不循環해진다 이를 기화로 外因淫邪는 血中剩餘를 結滯시켜 髓中滯核으로 有發되며 脊住內髓通邊에 髓隱停滯와 外部襲結과 相博이 되어 核이 發芽하여 이것이 數旬이 經過되면 脊柱內에 있는 邊處에 脊柱癌이 有發케 된다. 그런가 하면 同一類似體制로 發生하는 下記 症勢赤是 他的 肌膚에서 轉移해 오지 않으면서 單一化 淋巴腫瘤로 餘他臟器氣流에 버금가는 血과 氣의 不均衡 즉 血中の 氣短과 氣中の 血流衰退는 必然코 淋巴腫瘤發生에 크나 큰 比重을 차지한다는 것을 筆者는 기록코저 한다 이 모든 것을 漢方外科學의 側面에서 內복약을 복용하지만 그 內복약은 外科적 治療를 위해 選擇되어야 하며 어떤 忍苦의 症候일지라도 治療에 臨하기 전엔 補氣榮血이 最大優先의 妙라 여겨진다. 이는 中脘腫瘤發生의 間接論을 한 部分的만 舉論하는 것이 의구심이 적지않다.

× 乳癌

乳癌由肝脾兩傷, 氣郁凝結而成 以下 略 醫宗金鑒에서는 乳腫이나 乳癰이나 核이나 癌等 婦人과 男子의 乳房 에는 綿과 같은 形態의 集押體인 스폰지같은 肌肉體의 局部로서 異常異

物の 礎点變形은 結이나 腫 癰 核 癌等 全般의 諸症候가 有發하면 이미 治之엔 어려운 難點인 肝血의 不足量으로 血中氣衰가 脾氣活動에 障碍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의 症勢는 肝脾兩傷이라는 始論을 提起하는 것이다 肝氣脾循이나 脾氣肝循의 上下通移不舒의 氣結은 “乳房” 滯於兩方中 致凝而爲核이 되며 棗, 栗, 棋子의 形態이나 無色無熱이므로 始初는 腫과 癰과 核과 癌등도 患者 本人의 乳房이 氣不循으로 將次 凸腫의 枯경則 癌의 綿肌血絲未熟腐濁이면서도 아무런 症候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大通 深而隱通 急時腫大牽人 肱腋等 腐爛深如 乳房堅과 疼通連心이 되어서 治療를 呼訴하는 문약來客者들의 願에 따라 症의 比率을 算出한 것이다. 이를테면 來方患者의 數에 治之%는 10中 6名 程度로서 어떤 종류의 亂房의 疾患이든 治療를 호소하는 疾病이면 必然氣鬱과 絶對有關하며 기필코 深重之疾이라 봐야 하며 累積된 傷心과 情緒의 不暢으로 憂鬱等이 주는 霜霧雲集과 같은 아주 微弱한 發病일 것으로 알고 輕症일 때 간단하게 開肌切除를 하면 別關係가 없다고 하여 現代의학에는 이를 手術을 强要함에 患者亦是 이를 認定 수긍함으로 手術을 받았으나 萬一例后가 좋지 못하다고 할 때 再發의 공포감과 再手術의 불안 때문에 氣郁은 加一層 더 甚해지며 滯積된 氣郁은 乳房癌보다 발생률이 10中 8~9名 程度 더 優越한 것이다. 그러나 男子인 경우도 一般乳房에 어떤 불순물이 생겼다면 治之難題며 療后難平이라고 본다

(2) 臟腑營養失調

臟管内에 腫瘤가 形成되는 것은 臟腑의 기능이 相生化되지 않으므로 腫과 瘤와 癌은 有發된다. 但 局部自身の 氣勢로서 大氣圈의 外邪侵犯을 이결낼 수 있는 지 없는 지 또한 癌發生防止에 對抗할 수 있는 지 없는 지의 抗力마저도 무력해짐에 따라 病發生에 對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內部的 運化機能에도 正虛氣弱이라 斯界에서는 記錄하고 있으나 其의 結論 또한 그렇지도 않다 古書의 기록을 引用하기 전에 筆者는 아래와 같이 적고저 한다. 局所氣衰면 局所終於血瘀요, 局所氣虛면 瘀血爲換으로 會導致疾을 가져옴에 따라 局部局所의 腫瘤核이 유발되며 末期에는 癰, 腫, 즉 癌으로 變肌狀을 유발한다고 본다 그런데 古書 內景記를 보면 「內景·評熱病論」 引用 “邪之所湊 其氣必虛 對惡性腫瘤, 發生來說同拌有着一定意義” 外邪는 單一局所에 虛点이 엮보이면 氣應에 對射가 있기 전에 물밀듯이 침범해 오는 六淫 즉 臟器의 壁에 攻襲하고 潤調生氣活血에 아무런 虛点이 보이지 않을 때 邪의 局部侵犯이 없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지만 사람은 日常生活에 있어 同伴하는 모든 要件이 具備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對外的인 生活에도 相對性이며 生命을 영위하는 衣食住에도 相對性이며 生命存續의 壽에도 相對性이며 아주 “모질고 毒한” 病을 이겨내는 데에도 相對性이며 모든 病을 예방하

□ 학 술

는 데에도 相對性이다 그런데 잠시 時惟論을 을 들어본다. 年初에 간 봄은 다시 오지 않은 것으로 進的終이요 既的初行이라 생각할 때에는 이미 終着驛이라 하지 않을 수 없듯이 受病이면 벌써 中等度(二期)라 봐야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病이란 아무리 惡性疾患이라 할지라도 發生后腫處塊大는 同伴者的인 意義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며 壽에 危害를 가하고 있으므로 得病者로 하여금은 아무리 惡性腫瘤라 할지라도 “風에 襲邪를 當하여 고생하는 환자를 풍을 보하고 환자를 補氣하고 活血逐瘀함으로 治療”가 되듯이 腫瘤나 癌 환자라 할지라도 先解初邪后腫瘤며 除癌療養일진대 善治補氣와 先賢諸를 하면 后限없이 加療됨을 적고 싶다. 近間에 癌왕는 화자로서 굳은 意志로 民淡藥과 長壽食品으로 完治되었다는 소리가 자자하더니 또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同好人會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肝癌이면 肝癌, 胃癌이면 胃癌, 乳癌과 子宮癌等, 여러 腫들의 癌을 敎의 安息이나 食生活改善으로 生과 死를 바꾸어 가진 사람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다. 이 또한 參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無氣乏力이면 氣衰不舉며 氣虛不動이며 氣脫必死임을 본인도 必然描寫해야 될 것으로 안다. 氣不足이면 勝病抗力마저 不足해지니까. 하지만 앞서 말한 民間藥을 服用한 同好人會와도 反認的인 相對論이 되지만 추적하는 里程表는 生의 論理에 同一視 않은가에 交和의 뜻도 담겨져 있다. 사람은 旺盛한 氣力이면 어떤 병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은 심리와 古書의 정음을 필히 參考해야 함을 反復記錄코저 한다. 但 抗癌能力을 가질려면 補氣爲主여야 하지만 氣는 七情을 同伴함으로 停滯나 過度上溢일 때는 氣郁症으로 突變하여 發生되는 局所는 橫隔膜이나 食道 氣道脾胃等 中脘以上の 局部에 障礙가 發生함은 內患之疾이라 하며 表皮視界에 젖어드는 乳癌과 腋下腫瘤 皮膚腫瘤, 癌甲狀腺腫瘤等으로 구분하여 治療에 임할 때에는 治療后의 療后를 考察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病的 始發과 腫瘤 癌일지라도 始發과 症勢 또한 辨症과 각각 구분함에 痛症도 各異하며 치료에 임할 때에도 細密히 分類를 해야 할 것이다.

腫, 瘤, 癌 모든 疾患의 類形이 제각기 다름과 “發生의 課程이 各各判異한 点”을 既述한다면

- ① 邪氣留滯로 인한 腫瘤癌
- ② 氣滯血於로 인한 腫瘤癌
- ③ 淡疑毒聚로 인한 腫瘤癌
- ④ 邪與氣血痰相搏으로 인한 腫瘤癌

其의 發生 성장 통증 轉移 “筋, 肉, 骨等의 症候” “정候”를 治療 不可不로 分離케 한다

(3) 痰濁內生の 結聚成核

飲食을攝取하려면 맵고 얼큰하고 반지리리한 기름진 것 等, 그 自身外에 남들의 口說에 오를 程度로 飽食을 하며 厚味過慾으로 過飽食이 되어 飲食物이 不消殘在內伏하여 있는 것이나 淸飲食之라도 시간이 경과되면서부터 汚濁으로 변형되어 局部에 隱滯된 것이 모두 局部에 潰瘍과 炎症을 誘發케 된다. 이 過抱食의 殘存物로 發病된 것이 慢性으로 長久히 炎症이 지속됨에 따라 其炎症에 의해 津消脫元으로 硬固하고 통증은 多少鎮靜이 되나 飲食物의 水分이 炎症있는 곳에 보습케 된다. 그러나 음식물은 부분적으로 健消下注케 되고 一部分은 硬固하면서 염증이 있는 곳에 食之變濁物인 痰이 依存케 되어 隱隱中 차츰 外硬內腐케 된다. 그러므로 “古書” 流通當時의 論說에서는 痰氣升降이라 하였으며 또한 痰與腫瘤 歷石 石癆 (丹溪心法：論 參考) 等도 이에 關聯된다고 記述하였으며 「外科正宗說」에는 飲食不節의 根源으로 發病하는 管臟腫瘤은 煎, 炒, 灸, 灸, 思慮暴急 痰隨火行(外科正宗：論說引用 參考)이라 論함이다.

사람은 生活을 함에 있어서 必然코 相對性이 있다는 것을 위에서도 말한 바가 있다. 이 상대성을 착각하고 別 큰일이 아닌데도 性急한 火를 내거나 남들이 理解를 할 수 없으리만치 氣를 울리며 自己主張을 하다가 自己氣分에 充分치 않을 때엔 “온” 종일 입을 쉬지 않고 계속 먹어대는 행동 그나마 지지고 볶고 굽고 아주 기름진 음식만 먹어대면서 胃를 잠시도 쉬게 하지 않는 특이한 점, 그로 인하여 모든 行事に 燥急한 심정으로 不完消食物일 境遇 痰隨火의 근원에서 얻어지는 痰源腫瘤의 症候를 論說한 것이다.

(4) 六淫之邪와 腫瘤根源

外感六淫之邪 與腫瘤의 發生發展 有一定關係

外感六淫(中醫外科學, 癥論中 一部 引用) 즉 風 寒 暑 濕 燥 火等 自然의 動於氣之變形으로 사람에게 近接하려 할 때라고 생각이 들때면 이미 자연의 氣勢가 六淫之邪疾로 攻襲하며 濕源의 수분과 燥火의 燻蒸課程에 변하므로 凝固於痰生이 되어서 小宇宙의 어디인지는 몰라도 腫과 瘤의 발생이 되는 상대적인 면에서까지 일정한 十二節의 變氣에 應할 수 밖에 없고 그를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 人體 五臟의 小宇宙 役割이 아니겠는가 싶다

〈靈樞：五變〉

中說：引用 “寒溫不散 邪氣稍至 蓄積留止 大聚乃起” 記錄引用 以下略.

外邪內襲하여 점점 蓄積이 되면 寒邪와 濕溫의 공습을 당치 않을 수 없으며 어떤 물의에 過聚化되어서 局部는 변하며 그 변한 局部는 어떤 이상이 생긴다는 論說을 피력하고 있다.

“五運變邪”이니 癌의 素因된 因子를 增殖시키는 데는 필연코 冷과 熱을 수반한다

이 冷과 熱을 不注意한 탓에 留人內攻이 되어 있으며, 表皮로 發散을 시키지 못할경우 局部에 隱隱한 熱이 발생하므로 因해 不注諸物이 不應閉塞해지면서 疏通이 不快해지고 보면 局部峽谷에 積聚化되어 차츰차츰 微分에서 小로, 小에서 中化로, 中에서 微核으로 微核에서 小瘤로, 小瘤에서 腫으로, 腫에서 癰으로, 變癰腫瘤로 淋巴腺은 淋巴節로 相應하여 肌繩結綴이 된다. 小筋이 大筋으로 有變增殖이 된다. 이를 局部凸型態로 변해 가면서 淋巴系中の 筋膜內에 神經을 變肌有質의 癌症을 誘發시킬 때 局所가 肌枯가 되어서 本是型容을 還型치 못할 경우 이를 變枯라는 이름으로 쓴 것이다. 聚者陰陽不和, 臟腑虛弱 受干風邪, “博干臟腑之氣爲也”(諸病源論 積聚候說 引用考)以下略.

病原論에는 局部와 肌肉의 變型과 變化된 腫 癰 瘤에 대하여 臟腑虛弱의 틈을 타 大氣圈의 陰과 陽의 不和 및 宇宙圈의 風襲變化로 陽明受患의 胃克變異가 되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納於太倉이 喜之抱受 하므로 臟腑의 氣亦是 博力衰退하여 感受함에 있어 內功으로 得邪變氣에 血瘀를 부르게 됨을 論하고 있다. 즉 臟器自身이 虛克하면 外邪도 排除 못하고 食而不完消함 에 積於殘存有滯며 聚之陰症을 招來케 되고, 胃虛積在면 不可不陽症으로 風邪感於臟病이 되므로 輸給營養不足의 原因이 內虛氣弱을 招來케 된다.

大氣의 六淫之邪와 臟管虛弱의 內在로 七情의 不循不和에 感한 凸과 凹와 腫 瘤 癰 核 瘍 癌 等の 症患을 主因되는 根源과 病治研究에 斯界人들에 清願과 讀解研을 바란다

上記 論한 病因病理中 必然主要한 主眼點은 인체가 正氣不足이면 人體內外에서 下等於 아무런 理由없이 病源을 가지고 侵犯해 음에 있어 그에 對抗할 수 있는 能力이 減退됨에 따라 宇宙空間에서 組織化된 邪氣가 人體의 虛點만 있으면 六淫의 毒邪로 來襲한다. 또한 日積月累로 導致 癰과 腫과 瘤 등을 誘發케 한다. <諸病源候論> 積聚論說을 引用해 본다면 積聚者는 陰과 陽의 不和로 營養의 供給不循에 依해 陰中之陽과 陽中之陰의 相交가 不調해져서 一段 虛弱해지면 其 虛를 틈을 타 其 虛者는 風邪를 幅넓게 모든 氣脫臟腑가 感하며 發病에 따른 其 原因에 따른 一助를 한다 그리고 <醫宗必讀> 積聚假說을 引用하면 積之成者는 臟管의 正氣不足으로 體內에 邪氣가 要虛踞之하므로 其 邪가 他臟器에 轉移進步를 해서 進化가 되어도 進化課程은 전혀 意識할 수 없으며 患者自身の 正氣不足으로 인해 食而不消之物의 添積汚濁化되어도 下注未足으로 聚左物中の 內左要素가 腫 瘤 核 癌을 形成誘發케 한다 本論考者는 十分 半半의 私見意思이나 治療後의 後遺症으로 生과 死의 難題가 있음은 自他가 다 公認하나 生藥의 治之엔 別 難題가 없으므로 研究多研을 希望한다

2. 辨症治論

上記 病因 病原의 論과 같이 療治說은 두 種類로 分類할 수 있다. 其 첫째는 祛邪이다. 古書 內景에는 말하기를 寒者는 熱之며, 熱者는 寒之며 堅者는 削之며 結者는 散之며 瘤者는 攻之인 理論으로 先用 攻堅 破積과 活血化瘀 蟲類 毒類과 清烈解毒等 峻猛藥物로 消除 癌腫 治之의 目的인 바 正氣 耗損의 抗病力 低下로 致病 加重이니라

둘째는 抗正이다. 體虛 脫力으로 機體 抗病力이나 利于 扶正이라야 祛邪는 물론이고 消除 癌腫이라 본다.

古書 素問에는 “正氣存內며 邪不可于”이라 적고 있다 惡性 腫瘤를 治療할 때 必須 扶正이며 祛邪는 時期에 알맞은 旬期 要節이나, 邪氣 日盛이면 正氣 日消며 不攻去之면 喪亡 失期라 본다. 그러므로 正氣와 邪氣의 두 兩立 交戰이니 應用 補氣 藥物이며 扶助 正氣로 邪浸 不依에 內強 抗慈라야 된다.

(1) 清熱解毒法

惡性 腫瘤 破潰 灼熱 疼痛 滲液 腥臭 心煩 口渴 尿赤 便秘, 脈數 等症 毒邪 內은 熱毒 積盛 宜 清熱 解毒 療治 選考

〈常用 清熱 解毒 材〉

白花 蛇舌草 腫節 風 山豆 根 金銀 花, 紫花 地丁 白蛇 草, 蛇 蚩 草

(2) 活血祛瘀法

사람의 氣와 血이 經과 終으로 傳行하는데 升降하며 循行 全身이라 한다.

氣는 血의 總師요, 血은 氣의 母요, 氣行이면 血行이며, 氣止면 血止라 하였고 또한 氣郁과 氣滯는 모두 血瘀 凝成으로 出現 腫瘤라 본다. 體表 惡性 腫瘤며 臟腑 積聚 形成等 病機의 瘀血은 必有 有關하다

〈常用 活血 化瘀 材〉

三稜 蓬朮 土別 蟲 桃仁 赤芍 藥 水蛭 地榆 漏芦 (청어소담소종약재)

(3) 化痰散結法

痰은 十病 九痰이란 말과 같이 發病 於源이며 病理 產物이라 일러왔는데 臟腑 失調의 內因으로 是 脾肺의 根源이라 본다

水濕 內停과 津液 止給 凝結 成痰等은 氣塞 不通過 血壅 不流 凝津 血滯으로 腑中 滲着 成痰이 됨에 痰之 發病은 十中 八九라 본다 故로 古書의 기록으로는 頑痰 百病之生이요, 醫者 視界에 들어오는 外科 疾患으로는 癭瘤 舌癌等이며 痰濁 凝聚로 筋計와 皮內 癆核과 舌邊 肉柱가

□ 학 술

發生된다.

〈常用化痰散結材〉

南星 半夏 海藻 모蠣 山慈姑 干薑 瓜루仁 土芋

(4) 疎肝理氣法

七情所傷으로 肝氣郁結이 되어서 氣郁血凝이 腫塊有發의 근원이 된다. 肝郁로 因하여 乳癌과 石瘻도 有發된다. 간혹 胸脇이 隱隱作通하며 鬱悶不舒와 乳房脹通은 玉堂配收不調로 行經調節이 不均하여 짐에따라 疎肝理氣를 바라며 氣機流暢과 氣血調和等으로 行氣와 活血과 散結이 되며 消腫止痛의 목적을 쫓을 수 있다 「外科醫案망論」說을 보면 氣爲血之師요 氣行則血行과 陰生陽長等은 氣旺流通인데 自然壅者易通이니라.

〈常用疎肝理氣材〉

橘葉 香附子 只角 八月札 九香蟲 佛手草 綠欖梅 柴胡 銀柴胡

(5) 扶正補虛法

惡性腫瘤는 發育이 아주 急速度로 迅速하게 커지며 邪毒이 效張하며 其症勢는 險惡하며 恨스럽게 癌의 形態가 즉 腫塊가 目見에 表出되어 번져질 정도로 되면 既히 中等度以上으로 또 恒急히 體質은 消瘦해지고 臟管의 陰과 陽과 氣와 血等不足減이 역력히 보이며 面色은 창백하며 元氣도 急速度로 脫元해지며 無氣해지고 潮熱盜汗과 手足煩熱인데 要治根本은 扶正 培本이러야 된다.

〈常用扶正補虛藥材〉

紫河車 人蔘 堂三 淫羊藿 黃기 白朮 土絲子 女貞實 阿膠 何首烏 熟地黃 當歸

上述한 바와 같이 사람은 延年益壽와 富貴功名을 願하나 不順한 大氣의 邪疾과 人體內部의 百病所生인 七情過剩 禍의 根本이 되는 衣食住를 生의 情緒에 融合이 不足하므로 氣와 血의 所願不得이 되어서 百壽를 노릴 健康을 突變하게 망가트리며 世波蒼舟가 되는 일들이 허다함에 古書에 담은 治療學說만이 能事가 아니므로 筆者가 平時에 자주 投藥하는 處方을 記錄한다

• 筆者處方

人蔘 白朮 當歸 川芎 赤芍藥 生乾地黃 熟地黃 黃기 桂皮 何首烏 白花蛇舌草 石斛 瓦松 三白草 拔계 紫花地丁 土芋 浦公英 銀花 白茯 甘草節等이다

患者들의 氣血을 參考하여 方劑를 造成할 것이며 藥物을 試用할 때는 平時服用量의 減半程度 服用케 하여 抵抗力에 損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參考書籍

- | | |
|----------------------------|-----------------|
| 1 東醫寶鑑 | 8 丹溪心法 |
| 2 辯症奇門 | 9. 外科正宗 |
| 3. 中藥臨床手冊 | 10 諸病源候論·積聚候說引用 |
| 4 中醫外科學 | 11. 六氣正記大論 |
| 5 病과 治療 | 12 內景 |
| 6 診斷과 治療 | 13 醫宗金鑑 |
| 7. 醫林誌 癌과 漢方治療試圖(71號 p 17) | |

책이란 펴서 전하는 것이 可畜하나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렸으니
서들러 펴 필요는 없으며, 또 사람들이 本草書 같은 기본서를 읽지 않는데 치료법
만 가지고 어찌 활용을 다 한다고 할 것인가. 이같은 내 생각은, 救世하고자 하는
뜻은 간절하나, 오히려 증상이 비슷한 疝 病으로 알고 잘못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
워 망설이노라

- 黃度淵(方藥合編) -